

장애·비장애를 넘어 '평화의 울림'

K-양궁 심장 광주, 세계를 쏜다

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'86일 앞으로'
9월5일-28일...5·18민주광장서 결승전

세계 최고의 양궁선수들이 쏘아올리는 금빛 화살.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감동의 순간. 세계 평화를 향한 양궁의 새로운 미래가 광주에서 새롭게 펼쳐진다. 전 세계 양궁인들의 축재인 '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'와 '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'가 오는 9월5-28일 광주국제양궁장 및 5·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.

이번 대회는 '평화의 울림(The Echo of Peace)'이라는 슬로건 아래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평화를 향한 메시지를 세계에 전한다. 한국에서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것은 서울(1985년), 울산(2009년)에 이어 세 번째다.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광주(2007년)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비장애인선수와 장애인 선수의 대회가 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것은 이탈리아 토리노(2011년), 네덜란드 스키토벤보스(2019년)에 이어 역대 세 번째이자 국내 최초다.

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은 올림픽 양궁 방식으로 세계 최초·최장 6일간 치러진다. 대회 결승전이 열리는 5·18민주광장은 '민주·인권·평화'의 산실로,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스포츠를 통해 그 가치를 알리는 등의 의미를 더한다. 단순한 스포츠행사를 넘어 전세계에 문화·역사·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축제가 될 전망이다.

빛고을 청년과 시민들이 국제대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'시민과 함께하는 대회'라는 가치 실현에도 나선다. 이달 중 '경기 운영·경기 지원·안전관리·통역'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 200여명을 선발해 교육한다. 광주시는 앞서 지난 5월22일까지 총 3천200명의 시porter즈를 모집했다. 시porter즈들은 광주를 찾는 세계 각국 선수단 환영·환송, 경기 응원 등 대회 기간 '광주'의 문화 사절'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.

박희중기자



광주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이 열리는 5·18민주광장



광주 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광주 2025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홍보대사 안산, 기보배, 김옥금.

광주매일신문
창사 67주년 특집 28면 발행



57 광주은행 창립 57주년 1 8년 연속 1위

광주은행 Ten Ten 양궁단이 응원합니다!

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25. 9. 5 ~ 12
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2025. 9. 22 ~ 28

대한민국 양궁 파이팅 fighting

시진 인력부터. 광주은행 텐텐양궁단 객진영, 최미선, 안 산, 김정윤, 최예진 선수

광주은행